

 국토교통부	보도참고자료	
	배포일시	2018. 3. 20(화) / 총 2매(본문2)
담당 부서	도로투자지원과	담당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방윤석, 사무관 김숙주, 주무관 문선용 • ☎ (044) 201-3900, 3903
보도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“정부 민자도로 재정전환은 민간기업 아이디어 가로채기” 보도 관련

- 국토교통부는 국가간선도로망의 통행료 인하 등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자고속도로의 재정전환*을 검토 중으로

* 2018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('18.1)

- 검토 대상 사업은 국가간선도로망에 반영된 노선을 민간이 제안한 경우가 해당 되며
- 재정 사업방식 전환 검토 과정에서 한국도로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투자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검토·추진할 계획입니다.

- 2010년 이후 개통된 민자도로의 경우 재정도로의 1.16배 수준으로 과거 민자도로에 비하여 통행료가 낮은 것은 사실이나

- 재정도로는 통행료 인상요인을 억제하고 있는 반면 민자도로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통행료를 조정하므로 장기적으로는 재정도로서 국민의 통행료 부담과 재정부담*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.

* 2004년부터 2017년까지 통행료 미인상에 따른 재정부담금 약 3,600억원

- 아울러, 재정전환 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도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대비할 계획입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세계일보, 3.20.(화)) >

◆ “정부 민자도로 재정전환은 민간기업 아이디어 가로채기”

- 2010년 이후 개통된 민자도로의 경우 통행료도 재정사업 도로의 1.16배에 불과
- “예비타당성 추가 조사 등 절차로 인한 공사 지연 우려”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 김숙주 사무관(☎ 044-201-3900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